

오늘 밥다다는 자녀들 각자의 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각각의 생의 이야기에서 행운의 선을 보고 있다. 너희는 변함없이 꾸준히 발전해왔느냐, 아니면 나아가는 동안에 동요되었느냐? 두 가지 유형의 선이, 즉 삶의 양쪽 활동이 다 보였다. 상승한 후에 무슨 이유로든 너희가 상승단계에서 하강단계로 들어가는 경우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의 영향이 너희를 끌어당긴다. 예컨대 오랜 기간에 걸친 상승단계의 영향은 너희가 오랫동안 성취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쉬운 요기의 삶을 가진 자들은 변함없이 아버지에게서 가까우며 그의 동반을 경험한다. 한결같이 너희 스스로를 모든 힘의 주인이라 여김으로써 너희는 쉽게 기억의 화신이 된다. 역경들과 시험들이 올지라도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 스스로를 장애의 파괴자로 경험한다. 너희가 비록 오랫동안 상승단계와 강력한 단계를 경험하더라도 만일 그 상승단계 다음에 하강단계가 온다면 너희는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쉽게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별히 노력한 후에만 너희가 그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변함없이 상승단계를 가지는 것은 곧 이미 모든 성취를 다 이룬 자라는 뜻이다. 변함없이 상승단계에 있다가 동요되는 자들, 뭔가를 잃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얻는 자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혼들은 뭔가를 얻고 나서 그걸 잃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성취하는 경험을 이미 했으므로 그 단계를 다시 얻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주의를 각별하게 기울인 후에 그들은 그것을 다시 경험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쉽게 이를 경험하는 자들의 명단에는 오르지 못하고 2등인 자들의 명단에 들어간다. 그들은 우등으로 합격하는 자들의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합격하는 자들의 명단에는 들어간다. 세 번째 범주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할지는 너희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3등에 속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지?

상승단계에서 끊임없이 발전이 있도록, 너희가 모든 특질로 충만하고 한결같은 성취의 화신이 되도록, 너희들의 생의 이야기를 그 정도로 고결하게 만들어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순간 올라갔다가 그 다음 순간 내려오는 게임이나, 한동안 저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 다음엔 한동안 내려와 있으면서 너희의 권리를 그런 식으로 영영 놓쳐버리는 놀이는 하지 마라. 오늘 밥다다는 각자의 생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상승단계를 가지는 자들은 몇이나 되고 그들은 누구냐? 너희가 어떤 명단에 올라 있는지는 너희 스스로 알 수 있다. 너희를 끌어내리려고 이런저런 상황이나 시험은 너희 모두에게 오고, 시험을 치루지 않고는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1) 초연한 관찰자이며 동반자라는 의식의 화신이 됨으로써 시험에 만점으로 합격하는 것과 그저 겨우 합격하거나 강압에 의해 합격하는 것과는 다르다. 2) 어려운 시험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거나 사소한 것을 대단한 일이라 여기는 데서 차이가 생긴다. 3) 일부는 심지어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분위기 속에 퍼뜨려서 아주 큰 것으로 만든다. 나머지들은 큰 것을 점검하는 동시에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 약한 상황에 대해 영원히 마침표를 찍는다. 마침표를 찍는다 함은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가득히 비축해 쌓아두고 미래에 만점으로 합격할 권리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들은 오랫동안 상승단계를 가지는 행운아가 된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어떤 특기를 간직해야 할지 이해하느냐? 이를 통해서 너희는 변함없이 특별한 생의 이야기를 가질 것이다. 어떤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너희에게 영감을 고취하고 열의와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런 이야기들은 너희로 하여금 생의 길을 뚜렷이 경험하게 해준다. 동시에 특별한 영혼인 너희들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즉 너희들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 영혼들에게 이 경험을 주게 해라. 모든 이의 입과 마음에서, “도구 영혼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나 역시 그걸 해야 해. 나 역시 전진해야 해. 나 역시 모든 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줘야 해”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라. 끊임없이 그런 삶의 이야기를 창조해서 그것이 남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줄 가치가 있게 되도록 해라. 너희가 뭘

해야 하는지 이해하느냐? 앗차.

오늘은 이중의 외국인들을 만나는 날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해외에서 온 자들의 만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가까운 (마두반 거주자들) 자들의 만남이기도 하다. 너희들 양쪽 모두에게 이것은 특별한 만남이다. 나머지들은 모두 그저 지켜보려고 홀의 옆과 뒤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와 있는 자들 모두를 존중하면서 그들 모두를 위해 멀리를 말했다. 앗차.

만남의 핵심 본질을 자기의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신호들을 그들의 삶에서 영원한 축복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축복의 공여자가 되는 자들에게, “귀담아 듣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만나는 것은 대등해진다는 뜻이다”라는 구호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의 화신인 자들에게, 사랑에 보답하면서 모든 이를 장애에서 해방시키려고 변함없이 협조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경험의 화신이며 경험이라는 특질로 남들을 채워주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완전하고 아버지와 대등한 자들에게, 그렇게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다디지를 만나심 .

아버지의 팔로 행동하는 도구가 된 너희들 모두 너희의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너희 모두 팔들이 아니냐? 너희들 모두 오른손이나, 아니면 너희들 중 일부는 왼손이나? 너희들은 제 스스로 브라민이라 부르는데, 너희들 모두 오른손이나? 아니면 브라민들 중에서도 너희들 중 일부는 왼손이고 너희들 중 일부는 오른손이나? (브라민들은 때로는 오른손이 되고 때로는 왼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팔도 역시 바뀌느냐? 라반의 머리들을 한순간에 잘라내면 그것 대신 다른 머리들이 생기는 광경을 그들은 실제로 보여준다. 하지만 브라민들 가운데에도 브라마의 팔들이 계속 바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팔들이 날마다 변한다는 뜻일 것이다!

사실 너희들 모두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라고 자칭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희가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열매를 먹는 자들이 아니고 노고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일부는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열매를 먹는 반면, 나머지들은 수고로움의 결실을 맛본다. 많이 애쓸 필요는 없다. 결의와 슈리마트를 토대로 그저 계속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행위를 행하기만 해라, 그러면 조금도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따르지 않는 탓에 마치 궤도를 이탈한 기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된다. 기차가 궤도 위에 있을 때는 애쓸 필요가 없다. 엔진이 기차가 움직이게 만들므로 그것은 궤도를 따라 쫓아 움직인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에, 즉 결심을 굳히는 것과 슈리마트를 따르는 것, 양쪽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만일 너희의 결심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결과가 어찌 되겠느냐? 너희는 노고의 결실을 먹을 것이다. 수고로움의 그러한 결실을 먹는 자들은 전사들의 줄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청할 때마다 그들은 뭔가 힘들거나 어려운 데 대한 얘기만 할 것이다. 앞서 너희에게 들려주었듯이 한 가지를 없애면 그것 대신 뭔가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쥐를 잡으면 고양이가 올 테고, 고양이를 없애면 개가 오는 식이다. 그러면 너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없애기만 하면서 바쁘다. 브라민 종교, 신인 종교, 전사 종교 등 세 가지 종교가 동시에 수립되고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겠느냐? 일부는 무척 애써서 (노력해서) 생을 취했다. 어린 시절부터 무척 애써야 했던 자들도 일부 있다. 이들 역시 다른 유형의 행운의 줄에 속한다. 일부 어떤 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전혀 애쓸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저는 슈리마트를 따르며 요기가 되어야 했어요”라 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목표의 화신이 되었다. 그들은 부주의하지 않고, 목표의 자연스러운 화신이 되어 전진한다. 부주의한 자들은 애써야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다. 그들의 미래는 창조되지 않고 그들은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부주의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순수한 생활을 하며 규율(일정표)을 따를 뿐, 삶 속에서 아무것도 혼습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기서 규율의 주님들로 숭배된다. 그들은 단지 규율의 주님들일 따름이다. 그들은 요가나 수업에 맨 처음 오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뭘 성취하느냐? 그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들었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전진하려는 목표도 없고 남들이 발전하도록 돕겠다는 목표도 없다. 그들은 듣고 스스로 즐기며 그걸로 좋다! 그들은 단지 왔다 가고, 먹고는 떠난다. 그런 영혼들은 규율의 주님들이라고 불린다. 어쨌거나 그런 영혼들마저도 숭배된다. 그들은 최소한 규율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행한다. 그 결과 그들은 숭배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비가 오면 다른 특별한 영혼들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영혼들은 반드시 간다. 어쨌거나 순수성을 지키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숭배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그런 이들도 역시 필요하다. 그들은 10년 동안 여기에 왔을 수도 있지만 너희가 그들에게 질문하면 10년이나 지났으면서도 그들은 첫날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한다. 앗차.

지금 밥과 다다는 서틀 리전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둘은 각자 독자적인 영혼이다. 그들은 1초에 봉사해서 모든 이에게 경험을 주지만 그들 둘은 서로 뭘 하겠느냐?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난 대화를 계속한다. 태어난 첫날부터 브라마 바바에게는 항시 소망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뭐였겠느냐? 반드시 아버지와 대등해지겠다는 영적인 관심과 도취감을 그는 변함없이 가졌다. 처음부터 브라마가 하던 말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나는 가고 있다, 나는 합쳐지고 있다.” 그는 태어난 때부터 끊임없이 생각로나 말로 항상 도취감의 이 말을 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말한 그대로,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그는 목표로 지녀왔던 형태에 합쳐졌다. 처음에는 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정되었던 운명이 예언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무엇을 봤느냐? 그가 육신 형태의 굴레를 어떻게 놓아버리고 아버지와 대등해졌느냐? 그는 마치 뱀처럼 낚은 피부껍질을 벗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것은 단 몇 초의 게임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이를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것, 투박한 느낌들을 쉽게 놓아버리고 애착의 파괴자, 기억의 화신이 되는 것이라 한다. 그가 “나는 가고 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같은 생각을 했겠느냐? 자녀들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빛과 힘이었고, 대등한 드리시티를 주고 나서 그는 날아다니는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느냐?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가운데 날고 있던 그가 날아가 버렸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쉽게 날았다. 이것을 처음에 말했던 그대로, 마지막으로 그 말의 형태가 되는 것이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따라라. 앗차.

밥다다가 이중의 외국인들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사랑하며 협조하는 영혼들 아니냐? 너희는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를 알아봤고 협조하는 영혼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면서 협조한다. 너희에게는 끊임없이 봉사에 대한 열성과 열의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무엇이 더 남았느냐? 사랑하고 협조하는 것과 더불어 한결같이 힘의 화신이 되어라. 강력한 영혼은 변함없이 장애의 파괴자이며, 장애의 파괴자인 자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 가슴의 옥좌에 앉혀진다. 너희가 그 옥좌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은 마야의 이런저런 장애들이다. 따라서 마야가 오지 않으면 너희는 한결같이 옥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너희가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다고 여겨라. 다양한 모든 관계와 모든 행위에서 아버지의 동반을 경험해라. 그러면 너희는 한결같이 그와 함께일 것이고, 변함없이 강력할 것이며 또한 한결같이 재미있는 경험도 역시 할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유형의 외로움도 겪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다양한 여러 관계로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자들은 항시 재미있고 행복한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뭔가 매일 똑같고, 만일 너희가 날마다

똑같은 것을 듣거나 똑같은 일을 한다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너희가 아버지와 다양한 관계들을 경험할 때 끊임없는 열성과 열의가 있을 것이다. 단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 경험하지 말고 온갖 다양한 관계들을 다 경험해라. 마두반에 오면 너희는 마음속에 재미를 경험하고 또 동반도 역시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낮이 어떻게 밤이 되고 밤이 어떻게 낮으로 변하는지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어쨌든 외국에서 온 자들은 변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너희는 한 분에게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아주 좋은 기회를 받았다.

그룹을 만나심 .

마하비르의 특질은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변함없이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

너희들은 변함없이 제 스스로를 마하비르라고 여기느냐? 마하비르 (하누만)의 특질은 그가 끊임없이 오직 라마 한 분만 기억할 뿐 다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자들은 변함없이 마하비르들이다. 승리의 톨락을 변함없이 짊고 있어라. 너희가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 때는 톨락이 불멸해질 것이다. 아버지가 세상 전체가 되었다. 세상에는 그저 사람들과 사물들뿐이다. 그러므로 관계는 모두 아버지와 의 관계이고, 이것에 사람들이 포함되며, 사물에 관해서는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이미 모든 성취를 다 받았다. 너희는 행복, 평화, 지식, 희열, 사랑 등 모든 성취를 다 받았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지각이 달리 어디로 가겠느냐? 그것이 다른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앗차.

Blessing: 낡은 세상과 낡은 산스카르의 어떠한 유인에 대해서도 산 채 죽음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산 채 죽어라.
올바른 방식으로 산 채 죽는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꿈에서 낡은 세상과 낡은 산스카르에 대해 한결같이 죽는다는 뜻이다. 죽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의미다. 어떠한 유인도 그런 영혼들을 끌어당길 수 없다. 그런 영혼들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일이 일어났어”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다. 일부 자녀들은 산 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데, 라반에게서 머리를 하나 자르면 다른 머리가 돌아난다. 그러나 너희가 기반을 끝내는 경우에는 마या가 형태를 바꿔서 너희를 공격할 수 없다.

Slogan: 기억과 봉사로 한결같이 바쁘게 지내는 자들은 전체 모든 이들 가운데서 복이 제일 많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